

서울 30대 총학생회 김동일-이준혁 당선

58% 투표율, 50.5% 지지 12대 총여에 이노경진-오신성희



지난 19일과 20일 실시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선거 개표 결과 김동

일(회계91), 이준혁(한의94)군이 제30대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에 각각 당선되었다.

총 유권자 9천 28명 중 5천 2백 32명이 투표, 58%의 투표율을 보인 이번 선거에서 김동일, 이준혁 후보는 투표자의 50.5%인 2천 6백 43명의 지지를 얻어 투표자의 35.8%인 1천 8백 71명의 지지를 받은 김봉석, 허인욱 후보를 7백 72표차로 누르고 선출되었다.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김동일군은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에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겠다는 마음"이라며 "당선되지 못한 후보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30대 총학생회를 알차게 꾸려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총여학생회장에 당선된 이노경진(국문96), 오신성희

(지리96)양은 전체 유권자 3천 4백 84명 중 2천 89명이 투표한 가운데 85.4%의 찬성표를 얻어 제12대 총여학생회장과 부총여학생회장에 당선되었다.

총여학생회장에 당선된 이노경진 양은 "당선이 되고나니 더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선거운동 기간

중 많은 학생들에게 밝힌 공약을 잘 지키면서 활동해 다음 총여학생회 선거에는 더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해에 비해 유난히 단과대별 지지의 차이가 컸던 이번 총학생회 선거의 단과대별 득표율은 표와 같다. <김남이 기자>

	문리대	법대	정경대	사대	기정대	의대	약대	치대	한의대	음대	체대
김동일-이준혁	556	147	487	133	179	51	120	241	447	161	121
이경희-장기영	126	77	28	21	30	49	27	57	53	63	33
김봉석-허인욱	350	126	412	55	64	435	25	118	110	42	134
무효표	21	6	10	2	2	7	5	11	7	10	6
오차	5	0	-10	0	3	6	0	0	-1	0	0
투표자/유권자	1048/2,081	356/639	1017/2,215	211/346	272/462	536/825	177/205	427/484	618/797	276/501	294/473
투표율	50.4%	55.7%	46.4%	61.0%	58.9%	65.0%	86.3%	88.2%	77.5%	55.1%	62.2%

총학선거
거듭나야 한다1차유세취소, 정책알릴 기회 부족
선거 시행 세칙 치밀하게 개정돼야

지난 주에 있었던 서울 캠퍼스 선거를 끝으로 양캠퍼스 총학생회 선거가 모두 끝났다. "청년 학생들의 선거에는 당선자와 낙선자가 있을지 언정 승자와 패자는 없다"는 말처럼 올해 선거가 공정한 법칙과 선의의 경쟁으로 치루어졌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했다. 그러나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 선거는 학생들의 무관심과 어려운 학생회 사정 등으로 몇가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첫 번째로 지적될 수 있는 점은 젊은 학생들에게 정책을 알릴만한 충분한 기회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올해 선거에는 두 번의 유세와 한 번의 정책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첫 번째 유세는 우천관계로 취소되었고 두 번째는 추운날씨 때문에 노천극장에서 진행되었다. 물론 강의실 유세와 정책자료집을 통해서도 자기 총학생회 운영에 대한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러후보 가운데 자신이 지지할 후보를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 자리는 역시 합동유세다. 단지 비가 온다는 이유로 사전에 약속된 유세를 취소해 버렸다면 그것은 정

책선거를 지향한다는 각 후보의 방침에 반하는 조치라고 판단된다.

정책 토론회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안고 있다. 정책 토론회는 각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구체적인 비전을 묻고 각 후보간의 우열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이다. 그러자면 후보자간의 직접토론 방식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질문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번 토론회는 예정된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취했다. 명목상 토론회이지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다했다고 보기에는 무리이다.

두 번째로는 치밀하지 못한 선거 시행 세칙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세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원칙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총학생회 선거 시행 세칙 중 특히 문제 되는 부분은 제 24조 정계, 타 후보자에 대한 인신 비방 등 민주 선거 분위기를 저해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의 심의, 결의에 의하여 다음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정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시작되는 이 조항이 문제되는 이유는

제 1번 경고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없기 때문이다. 세칙만 본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경고조치가 내려지는지 분명하지도 않을뿐더러 경고 이전에 시정이나 주의 조치에 대한 명시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가 선거 기간 도중 리플렛과 신문물 사전 허가 없이 배포했다는 이유로 양선본 모두에게 경고를 한면 내리고 김봉석-허인욱 선본 측이 자신의 신문에 기재한 기사 내용을 두고 또 한번의 경고를 내림으로써 문제는 불거졌다. 세칙내용에 따르면 3번 경고조치될 경우 중앙선관위 제

적 2/3이상의 찬성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의 경고조치는 너무 심했다는 것이 김-허 선본 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 측 입장은 다르다.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민소영양은 1차 경고가 두 번 있을 수도 있고 2차경고도 세 번 있을 수도 있다. 김-허 선본 측에 내린 경고는 1차 경고였지만 인신공격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대차보환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김-허 선본측입장은 정반대다. 선거 시행세칙상 1차 경고는 본인에게만 알리고 2차 경고는 대차보

환해서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실제 2차경고까지 받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밤이 부실하니 일관된 집행이 이루어질지 만무하고 집행에 별 문제가 없더라도 말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우리들의 대표를 뽑는 총학선거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이번엔 나타난 시행세칙의 부실함과 적용상의 오점들은 선거가 끝나면 모든 문제가 호지부지 되었던 예년과는 달리 반드시 내년 전학대회에서 지워져야 할 것이다. <최수정 기자>



▲각 선본 및 소수 학생만 참여한 서울캠퍼스 정책토론회

수능 상위 5%, 4년 전액 장학금

수원 특차입학생 해당, 인원제한 없어

수원캠퍼스는 98학년도 입시를 맞이하여 우수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적장학 A, B, C를 패지함에 따라 특차전형 합격자중 대학수능역시시험 성적이 수능제출별보다 상위 5%에 포함되는 학생에 한해 졸업시까지 등록금을 전액 지급할 계획이며 기숙사 입사 시 기숙사비의 50%를 지급할 예정이다.

단 예제는 계열은 제외되며 일반 계열의 경우 해당 학생들에 한해서는 인원을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 학내외에서 획기적인 제도로서 인식되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조원경(전자과 교수)수원캠퍼스 교무처장은 "필요조건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인원이 얼마

가 되는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올해의 경우 전교적 차원에서 우수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98년 다이어리 지급

서울캠퍼스 인문복지위원회는 오는 26일 98년 다이어리를 전체 학생에게 지급한다.

복지회관 임대료를 비롯, 각종 학내 수익금을 학생들에게 환원하고자 매년 시행하고 있는 이번 행사는 다이어리가 학기초에 지급되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연말에 지급된다.

배부는 오후 1부터 5시까지 학생회관 앞에서 하며, 단과대 학생회장에 일괄 지급한다.

배부대상은 4학년도를 제외한 전체 학생이며 98학년도 신입생은 오리

엔테이션 기간에 지급한다.

역사문화교실

Special Performance

지난 7일 시작된 '주한 외국인 한국 역사·문화교실의 마지막 행사' Special Performance 가 오는 28일 오후 6시 30분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약 2시간에 걸쳐 우리학교 학생들이 선보이는 사물놀이, 태권도 시범, 전통무용이 공연되는 한편 김말에 교수님의 '춤타래' 무용이 공연되기도 한다.

행사를 기획한 서울캠퍼스 국제교육원장 안영수(영문) 교수는 "우리학교의 국제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던 이번 행사의 마지막 시간인 이날 행사에 우리학교 학생들도 자리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수강신청 27일부터
신청시 비밀번호 입력

서울캠퍼스 수업과는 98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일정을 발표했다. 수강신청은 오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학내 전산망과 PC통신을 통해 받는데, 이번 학기에는 특별한 개인별 비밀번호를 부여해 개인 정보 누출의 위험을 방지하도록 했다.

비밀번호는 수강신청시 자신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실행화면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부여되며, 비밀번호를 설정하려면 학생증을 지참하고 수업과에 문의하면 된다.

경희 space



조총장, 황규영양에 금일봉

조정원 총장은 현재 병상에 있는 황규영양을 대신하여 참석 한 동생 황규진양에게 지난 18일 수원캠퍼스 총장실에서 금일봉을 전달, 격려했다.

조정원총장은 이날 자리에서 사고초보다 호전 되었지만 아직도 완쾌 못한 언니의 병간호를 혼자 도맡아 온 동생 황규진양에게 주로 긍정적인 사고와 자신감 유지를 당부 했으며 좋은 결과를 기원했다.

황규진양(교2)은 현재 휴학 중이며 언니의 간호를 위해 병원에서 주로 생활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황규영양 돌기를 원하는 학생은 자연대 환경학과 학생회(201-2830)로 문의하면 된다.

지면안내

2 시 사
전자주민카드 시행안 통과 문제점 진단3 학 술
시리즈 - 인문학의 위기 III5 사 회
97 전국농민대회8 문 화
목의 카타르시스 효용9 인물포커스
상록악학12 Free Style
점(占)

경희 그 한주의 역사

1964.11.25. 고등학교를 방불케하는 엄격한 학풍조성 바람. 학풍조성주간 선포!

1964.11.23~28. 학생들의 교복·배지 단속을 등용문이며 문리대 앞에서 실시.

1965.11.24. 잘살기운동 1등 표어 발표 "배움을 무기삼아 잘살기운동 앞장서자"

1981.11.28. 행정대학원 교도 행정학회 창설.

교내단신

정보처리센터 네트워크장에 원인별 분석 수원캠퍼스 정보처리센터는 학내 전산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네트워크장에 원인별분석을 실시했다.

교체된 백본망(FDDI에서 ATM으로 시스템교체)을 보완하고자 실시된 이번 분석은 96년3월10일부터 97년10월20일까지의 네트워크 장애일지를 토대로 조사했으며 이 기간동안 총 43회의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원인은 전화국 에러(OR장비등 전화국관할라인 및 장비이상)가 10회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파견류 8회, 순간정전 8회, 전산소 에러(Configuration 잘못, 광케이블 접속 불량, 장비고장) 6회, 교내공사중 케이블 절단, 화재 3회, 전기 과부하로 인한 분전반 내림(사회대) 2회, 교수, 학생의 시스템 오세팅, 오장비 2회, 원인불명 2회, 수위실 전기코드 뽑아짐 1회, 교내 통신실 케이블 접지이상 1회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처리센터에서는 네트워크 단과대별 분리, 1포트 1통제체제를 도입하여 내년중에 정비완료할 예정이다. 서천리 자매결연 행사 수원캠퍼스 사무처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한화주유소 앞 공터에서 서천리와 자매결연 행사를 가진다.

우리학교에서 기증한 '서천리' 표식 제막식으로 시작되는 이번 결연식 행사에는 조정원총장을 비롯 용인시장과 지역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진실 총무과장은 "대학과 지역을 연결하는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대에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들은 앞으로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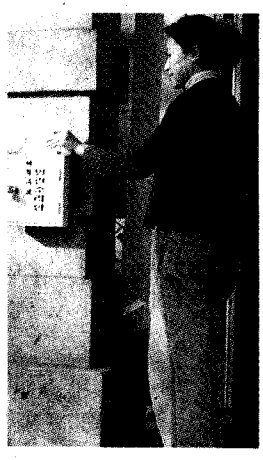
사 고

도깨비 장터 이용안내

대학주보에서 학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베품시장인 '도깨비장터'를 마련했습니다. 다 배운 교재, 컴퓨터 등 사고싶은 것, 팔고싶은 것이 있으시면 학내 곳곳에 마련된 도깨비장터 대자보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 대학주보 정보면에 그 내용을 실어 드립니다.

열린소리함 비치

학우들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대학주보에서 학내 대학주보 게시판에 '열린소리함'을 설치하였습니다. 학교생활 중에 느끼는 여러 불편사항이나 대학주보에 전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열린소리함에 투고하십시오. 언제나 학우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아쉬움

교시탑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어느 학교든지 흔히 말하는 구호이다. 모든 학내 행정을 학생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결연이다. 그러나 지난주 학교의 작은 실수가 학생들의 큰 불편을 초래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 21일 서울 캠퍼스 정경대에서는 98년 신입생 수시모집 필답 및 면접 고사가 있었다.

당시 단과대 7개 강의실이 고사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방송제작론', '우주와 인간' 등의 20개 전공, 교양 과목이 무더기 휴강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휴강의 사전 공고가 매우 미약했다는 점이다. 휴강 며칠전 단과 교무실 앞 게시판에 붙은 종이 한 장이 사전 공고의 전부였고, 그나마 다른 과시물과 어지럽게 섞여 있어 그다지 눈에 띄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휴강인지도 모른채 등교하여 곧바로 귀가해야 하는 혼란을 겪었다. 그날 휴강되었던 과목 하나만을 듣기 위해 여러시간을 전철 안에서 보냈던 학생들의 불편은 더욱 컸다. 급기야 21일 오후에는 중앙 대자보판에 학교의 불성실한 공지를 비판하는 항의 대자보가 불기에 이르렀다.

이번 사태는 정경대측의 편의 행정에 기인한다. 물론 학생들이 공지를 제대로 보지 못한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경대 교무실이 사전 공고를 어지러운 게시판 작은 종이 한 장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까? 휴강 공고는 적어도 일주일전 각과목 교수님들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되어야 했다. 아니면 학생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공고지가 붙어 있어야 했다.

학내 모든 행정은 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학내 모든 공고는 효과적이고 충분한 정도로 학생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송준우 기자>